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본격화

농진청, 관계 부처·민관 합동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지난 13일 오후,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춧대, 껌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 없애는 관행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순 후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파쇄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영농 부산물 불태움작 및 논·밭두렁 태우기 자체, 영농 부산물 자원화 활용, 파쇄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김재환 농촌진흥청장, 이미라 산림청 차장, 홍성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등은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와 임대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어



김재환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 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파쇄지원단과 합동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에 참여, 파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협업 활동은

2024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전국 139개소(138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과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 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 부산물 소각 자체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16만6,000톤)보다 약 21% 늘어난 20만1,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농업인은 마을 단위 또는 작목반 등과 연계해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등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작업 등선 등을 고려해 파쇄지원 일정이 조정한다.

한편, 2024년 발생 산물은 279건(132ha)으로 최근 10년 대비 49%가 줄었고, 면적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물 원인은 소각(19%), 입산자 실화(18%), 담뱃불 실화(13%), 연소재 취급 부주의(12%) 순이었다.

김재환 농촌진흥청장은 “영농 활동을 재개하는 3월을 앞두고 2월부터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이 빈번해지므로 파쇄지원단의 현장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올해 제2호 특화상품 ‘딸기’ 출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논산 딸기 할인가로 판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개설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KAFT, 사장 홍문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2025년 제2호 특화상품으로 논산 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딸기’를 출시한다.

이번 특화상품으로 선정된 딸기는 국산 대표 품종인 설향으로 풍부한 과즙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상품은 2월 13일부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1kg(스트로폼 박스, 500g(팩) 단위로 일반 판매가격에 비해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2023년 11월 출범 이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제주 감귤, 성주 참외 등 지역 대표 농산물과 김장철 명절 등 시즌 별 맞춤 상품들까지 총 14개의 특화상품을 출시해 왔다.

올해는 농산물 성숙하기를 고려해 매월 정기적으로 특화상품을 선보인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등록된 판매자라면 누구나 공지 사항을 통해 특화상품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논산 실향딸기



특화상품으로 선정되면 △할인지원 △견본발송비용 △거래 매칭 등 다양한 지원사항이 제공된다. 특화상품 제안 참여 방법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도매시장 누리집(kaft2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서령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사업처장은 “이번 특화상품을 통해 전국 딸기 최대 주산지인 논산 실향 딸기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특화상품 발굴과 프로모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전북상협, 전북지역 주유업계 경영 활성화 지원 건의

영업이익 감소·지속적인 운영비 증가로 인한 경영 압박 휴·폐업 심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경태)는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폐업 위기에 놓인 주유업계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위원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전달했다.

전북지역 주유소 수는 2020년 902개에서 2024년 826개로 76개(-8.4%)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6.2%)을 웃도는 수준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5번째로 높은 감소율이며, 연평균 15개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있다.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주유소의 80% 이상이 영세 임대사업자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월 임대료 부담, 금융 비용 증가 등 지속적인 운영비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 소비재인 유류를 공급하고, 개방형 화장실 운영을 통해 공공서비스 역할도 수행하지만 대부분의 주유소는 영세 임대사업자임에도 높은 유류세(판매금액의 60%)가 매출액에 합산되어 30여원을 초과하는 탓에 도로점

유료 감면과 지역화폐(고향사랑상품권) 사용 등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제인 유류세(판매액의 60%)에 대한 부가세와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영 압박이 심각화 수준이라고 상공인들은 절박함을 토로했다.

결국 이러한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건축물 철거, 토양 오염 검사 및 정화 작업 등에 평균 1억 5천만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폐업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옥기 기자

중기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4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총 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



‘농식품바우처사업 현장설명회’

전북농협, 하나로마트 실무담당자 60여명 대상 사업준비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4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하나로마트 실무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식품바우처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의 핵심내용과 사전 점검사항 등을 다루어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수혜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 과일, 유류, 잡곡류 등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임신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로 지원 금액은 4인 가족 기준 매월 10만원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는 카드에 지원 금액이 충전되는 형태이며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가능하고 정확한 사용처는 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환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